



언덕교회

- 창립배경과 취지, 규약 -

2022.01.09, 새가족교육

창립배경과 취지

- 교회개혁에 위한 절박한 몸부림:**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을 슬퍼하며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한 종교개혁, 더 늦기 전에 “우리부터라도 시작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
- 교회 민주화의 모범:** 사제적 권위주의, 개교회 패권주의, 차별주의, 기복신앙, 낭비와 사치, 외형성장주의, 불투명한 교회재정 운용, 도덕적 타락, 목회자 세습, 사회적 사명의 실종 등 문제에 대한 치유책으로 교회민주화의 모범이 되고자 함
- 인치(人治)를 억제하는 민주적 제도화:** 교회규약을 제정하여 이 제도에 의하여 교회운영의 근간이 세워지도록 함으로써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교회운영을 전단하지 못하도록 제어장치를 마련
- 평신도(성도)의 주체적 역할:** 평신도가 각성하여 주체의식을 가지고 기독교시민성을 회복한다면 목회자가 올바르게 자리매김을 하고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자각에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협력적 섬김의 관계를 구축
- 교회개혁운동의 군수기지:** 교회개혁을 위한 운동에서 전투를 직접 담당하는 ‘전위대’와 전위대를 후방 지원하는 ‘군수기지’의 역할 구분할 때, 개혁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기독교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든든한 기지로서의 ‘언덕’이 되고자 함
- 대안이 아닌 보편적 모델교회:** 최대한 기존의 주류 교회와의 공통분모를 확보하면서 교회의 건강성을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범 교회가 되고자 함

Declaration of founding

창립배경과 선언문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며 따라서 교회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명을 갖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깊이 병들어 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는 커녕, 사제적 권위주의, 개교회적 파권주의, 차별주의, 기복신앙, 남비와 사치, 외형성장주의 등 각종 질병에 젖어 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특히 한국교회에 있어 가장 큰 병폐의 하나로 치부되는 목회자의 사제적 권위주의 배경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언덕교회는 대다수 교회와는 달리 목회자가 창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염원하는 일반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이다. 이러한 출발은 교회건강을 지키는데 있어서 일반성도의 주체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인 동시에, 교회운영에 대한 목회자의 불필요한 간섭에 따른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회자의 전문적 역할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문성에 기초한 목회자의 말씀사역을 철저히 존중한다. 다만, 우리는 건강한 목회자의 말씀 사역과 각성한 일반성도의 헌신적 적절한 균형과 통역 위에서만 목회자의 불필요한 교회지배가 제어되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음을 굳게 믿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결단과 소원을 추구할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기에 더 더욱 우리는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의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키우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키우시는 것이라는 고백 위에 단지 섬기는 자들로서 이 일을 담당하고자 할 따름이다. 우리는 부족하나마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며 또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기에 또한 우리는 홀로 이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같은 인식과 의지를 갖는 교회들과 협력하여 이 일에 매진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협력을 위하여 교리나 신학사조의 일치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는 것을 전제로 성경을 전제로서 믿는 소박한 신앙고백만이 요구될 따름이다.

창립에 즈음하여 우리는 언덕교회가 비록 미약하게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능력 있는 교회들과 뜻있는 기독교인들을 자국하는 불씨가 되어 아무쪼록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이다.



열정적이고 순수한 신앙으로 사회를 선도하던 빛나는 과거는 흔적도 없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히려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로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한국교회의 위기를 망각하고 안 있을 것이 아니라 분연한 의지로 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한



특히 기존의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개혁실천에 소극적인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개혁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실천하는 모범교회의 존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언덕교회는 이렇듯 절박한 현실인식에 입각하여 창립되었다. 언덕교회는 창으로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바를 온전히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건강을 바탕으로 일하는 모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우리만 그러하지 않고, 한국교회 전체가 그리되기를 위하여 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언덕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모든 삶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평등한 성도가 민주적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언덕교회의 정체성

1.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 - 건강을 위해서는 일해야 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 ‘균형 있는 개혁교회’

2. 언덕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바라고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 세상의 빛이 되며, 소금이 되고자 함

3. 이념적 측면에서 언덕교회의 정체성의 세 가지 기초

- ① **복음적**: 신앙적 노선에 있어서 성경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복음주의 견지
- ② **민주적**: 교회운영에 있어서 신본주의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 지향
- ③ **개혁적**: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를 돌아보아 개혁의 노력 경주

비전과 실천

<비전>

1.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2. 성경에 기초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3.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교회
4.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실천방안>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 모든 교인의 사회봉사활동/ 정기적 흠어진 예배/ 교회 민주화를 위한 모든 직분의 임기제/ 민주적 의사결정/ 관리지출 최소화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 예배당 전용 재산 소유하지 않음/ 평신도 주축 교회운영/ 한국교회개혁에 적극적 관심/ 교회규약을 만들어 실천/

교회명칭 '언덕'의 의미

- ✓ 소박하면서도 정감 있고, 나름대로의 깊은 의미도 담고 있는 교회 이름 ... “언덕”

“산”이 주는 위압감 (교만) vs.

“언덕”의 포근함, 친근감 (겸손, 겸양)

→ 누구나 바라보고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교회

-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인 사제적 권위주의와 물질주의는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 이러한 병폐로부터 회복된 건강한 교회의 비전이 ‘언덕’에 함축 !!!

✓ 골고다언덕

- ▶ 예수님의 수난의 현장이자 부활의 현장,
- ▶ 슬픔과 걱정이 약속과 희망으로 바뀐 기적의 현장,
- ▶ 그 언덕을 바라봄으로써 위로 받으며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



✓ 고향의 언덕

- ▶ 지친 삶에서 안식이 필요할 때 떠올리고 싶은 곳
- ▶ 언제라도 돌아갈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반갑게 맞아주는 곳

- ✓ ‘누구나 바라보고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편안한) 교회’와
‘골고다의 언덕을 깊이 묵상하며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려는 (수고를 감수하는) 교회 사이의 균형 찾기



언덕교회 규약

- ▶ 2003.04.27. 제정 / 2003.12.28. 1차 개정(규약체계 정비, 규약과 시행규칙 통합) ~ 2019.01.13. 9차 개정
- ▶ 총 12장 50개조, 부칙 5개조
- ▶ 전문: 교회 창립취지, **복음주의적 신앙고백** 기초 확인
- ▶ 제1장 총칙: 명칭, 위치, 목적과 비전, 실천지침
- ▶ 제2장 교회정치: 신앙원리, 교회의 주권, 복음적 분업
- ▶ 제3장 예배: 예배(**평신도 참여**, 흠어지는 예배), 설교(**평신도설교, 설교 질문 토론**)
- ▶ 제4장 교인과 직원: 교인의 자격, 책임, 권리, 직원의 종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임면절차, 전도사, 사무직원
- ▶ 제5장 심의 및 의결기관: 교인총회, 직원회

- ▶ 제6장 집행기관: 운영위원회, 부서(예배, 선교, 복지, 교육, 재정, 봉사, 총무, 친교, 기획), 업무의 조정 및 위임, 부장, 기타기관
- ▶ 제7장 자치기관: 종류(교역자회, 장로회 등 직능 자치기관과 전도회, 여성회, 청년회 등 성별, 연령별 자치기관)
- ▶ 제8장 감사 및 평가: 회계감사, 운영평가
- ▶ 제9장 회의 및 투표: 회의 성립, 의결정족수, 회기의 조정, 투표방식
- ▶ 제10장 재정 및 재산: 재정원칙(**선교, 사회복지사업에 경상예산의 30% 이상**), 재정의 공개, 예결산, 현금관리, 재정이출, 전임직원의 보수, **재산의 소유 및 사용, 재산의 관리**, 회계연도, 회계 관리
- ▶ 제11장 권징: 권징의 원칙, 과정, 종류
- ▶ 제12장 발전과제: 발전과제의 수립, 발전과제, 교회의 분립
- ▶ 제13장 부칙: 개정, 시행규칙, 효력. 임기의 산정, 시행규칙
- ▶ 규약과 별도로 **언덕교회분립규칙**(11개조, 부칙 6조)을 두어 분립을 대비한 원칙을 규정

조직원칙

- 교회 내 권력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축함
- 권위주의를 지양하고 임직의 민주적 선출제와 임기제 도입

교인총회

-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교회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및 승인
- 교역자의 초빙, 장로, 권사, 집사의 선출 및 신임
- 의장은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교인총회가 선출
- 정기회는 2회 개최
(인사총회 11월, 사무총회 익년 1월)

직원회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로부터 교회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의견 제시



운영위원회

- 구성: 교역자회 대표, 장로회 대표, 각 부서장, 청년회장 및 구역장 대표, 여성회 대표. 교역자회 대표는 목사로 하며 2인 이내, 장로회 대표의 수는 회장을 포함한 2인, 부장은 직원회에서 선출하며 여성이 1/5 이상
- 업무: 교회의 기본운영방침, 재정운영기본계획, 인사, 기타 타 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
- 운영위원장: 장로회 대표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 교인총회의장을 겸임하지 못함
- 운영위원회는 교인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발언권을 보장

부서

- 예배부: 예배, 성례, 주보, 예배안내, 찬양, 위임자 초빙 등
- 선교부: 국내외 선교, 언덕이야기 발행, 사이버 선교 및 홍보 업무, 미 자립교회 지원 등
- 복지부: 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구제, 사회봉사, 장학사업 등
- 교육부: 교회학교, 새가족 및 기초신앙 교육에 관한 업무
- 재정부: 재정에 관한 업무
- 봉사부: 봉사에 관한 업무 (중식 및 접대 등)
- 총무부: 기록유지, 비품 및 시설관리, 홈페이지, 업무조정, 미디어팀 기타업무
- 친교부: 교인의 친교, 심방, 야외예배, 수련회, 체육대회, 친목활동, 새가족의 관리 등
- 기획부: 교회발전 기획, 운영평가, 교회 개혁운동 및 대외협력, 기독교민운동, 특별활동 등